

‘로또청약’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반값 아파트지만 현금 25억 필요

분상제 최고가 평당 8484만원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
당첨 시 최고 30억 차익 기대
대출 막혀 현금 동원력이 관건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3.3㎡(평)당 8484만원에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인근 시세 상승폭에는 크게 못미치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당첨만 되면 최고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지만 현금 동원력이 관건이다. 10·15대책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30평대의 경우 대출은 2억원이 최대다. 당첨이 되더라도 25억원 가량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

2일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3층 ~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06 세대다. 타입별로는 ▲59㎡A 223세대 ▲59㎡B 129세대 ▲59㎡C 26세대 ▲59㎡D 78세대 ▲84㎡A 14세대 ▲84㎡B 29세대 ▲84㎡C 7세대 등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투시도.

/홈페이지

지다. 9호선 구반포역과 직결했으며, 4호선 동작역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반포초와 반포중, 서래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이 반경 1km 이내 위치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인 강남구 청담르엘(7209만원)보다 1275만원이 높지만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3100만원, 84㎡ 27억4900만원이다.

인근에 지난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59㎡가 올해 8월 4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입주 16년차인 ‘래미안 퍼스티지’의 동일 평형도 올해 6월 40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의 경우 래미안 원베일리가 최고 72억원, 래미안 퍼스티지가 5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대상 지역인데다 10·15 대책으로 대출 제한까지 겹쳤고, 후분양으로 잔금까지 기간도 쪼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이다.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거주 의무기간도 3년이 있다. 청약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분양대금 납부 일정도 빠듯하다. 계약 체결 마감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분양가의 20%를 내야 하며, 두 달여마다 20%씩 납부해 내년 8월까지 잔금을 모두 치뤄야 한다. 규제에 따라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을 들고 있어야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는 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KB금융-현대百, 고객경험 혁신 맞손

쇼핑-고금리 혜택 결합 전용 통장
최상위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금융과 유통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압구정’에서 현대백화점그룹과 ‘고객 경험 혁신 및 금융·유통 시너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B금융과 현대백화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기반 확대·고객 접점 강화 ▲제휴 상품·서비스 출시 ▲ESG 기반 사회공헌 협력 등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과 유통을 아우르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고객에게 자산과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함께 관리받는 고도화된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는 현대백화점의 쇼핑 혜택과 KB금융의 고금리 혜택을 결합한 전용 통장 등 제휴 상품, KB스타뱅킹 등 KB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양사의 포인트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수 있



지난달 31일 KB금융의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에서 진행된 ‘KB금융그룹-현대백화점그룹 업무협약식’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장호진 현대지애프홀딩스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는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한다.

양사는 최상위 고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과 우대 서비스로 프리미엄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KB금융은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를 통해 현대백화점 최상위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 고객이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경우, 퍼스널 쇼퍼 동행 등 쇼핑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운정 아이파크 시티’ 투시도.

/현대산업개발

‘운정 아이파크 시티’ 4일 1순위 청약

HDC현대산업개발 견본주택 오픈
전용 63~197㎡ 총 3250가구 규모
평균 분양가 3.3㎡ 당 1894만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주말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경기 과천시 서패동 일원에 들어서는 ‘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규모로 전용 63~197㎡ 총 3250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규모 조경,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단지에는 시그니처필드·아트필드 등 다섯 가지 테마 조경과 수영장, 휘트니스, 독서실, 시니어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비대면 진료 등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도 도입된다. 4-베이(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중심 설계와

다양한 수납공간, 알파룸·룸인룸 구조 등으로 공간 효율을 높였고, 홈네트워크와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을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에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가깝다. 이마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와 심학중·고 등도 인접해 있다.

청약은 오는 3일 특별공급, 4일 1순위, 5일 2순위로 진행되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1894만원이다.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GTX-A 접근성과 메디컬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주거와 투자 수요 모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순익 12조 돌파한 4대 은행, 연체율 경고등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0.06% ↑
가계대출 강화로 기업대출 확대
경기회복 부진에 연체율 0.3%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 또한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2조141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0.06% 증가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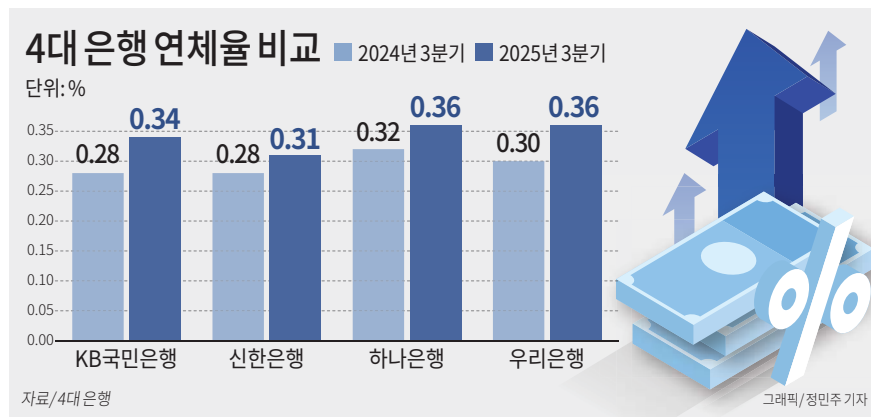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 3조3645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179억원) 대비 28.52%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까지 3조356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나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3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5억원(12.68%) 늘었다.

우리은행은 누적 2조28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문제는 늘어난 당기순이익 만큼 연체



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 4대 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평균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분기 0.28%에서 올 3분기 0.34%로,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0.3%에서 0.36%로 각각 0.06%포인트(p) 올랐다. 신한은행은 0.28%에서 0.31%로 0.03%p, 하나은행은 0.04%p 상승했다.

4대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말 기준 0.36%로 총대출채권의 연체율(0.33%)보다 0.03%p 높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이 총대출채

권 연체율보다 0.04%p 낮은 것과 대비된다.

나머지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총대출채권보다 높았다.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로 0.06%p 높았고, 하나은행은 0.46%로 총대출채권의 연체율(0.38%)보다 0.06%p 높았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총대출채권 연체율(0.4%)을 0.08%p 상회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회복이 더뎠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가 활력을 되찾지 않으면 기업대출을 늘린 은행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iM금융, 5년간 45조 생산적 금융 공급

iM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총 45조원을 투입해 생산적금융과 지역금융을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iM금융그룹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 38조5000억원, 포용금융 6조5000억원 등 총 45조원을 공급할 계

획으로, 생산적금융은 지역금융(대경권·동남권·중부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은 중소·혁신기업,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안승진 기자 asj231@